PGM Newsletter

2021년 제 6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제6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수료 및 파송예배

PGM 선교회는 지난 8월 23일 (월)부터 9월 10일(금)까지 제6회 PGM 선교사집중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PGM 선교사집중훈련의 목적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선교헌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음의 전문인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올해 제 6회를 맞는 PGM 선교사집중훈련은 영국, 과테말라, 한국, 키르기스스탄, 미주지역 (뉴욕, 펜실베니아, 조지아,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에서 모인 23 Unit 29명의 훈련생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중 17 Unit 21명은 8월 23일(월)-9월 3일(금)까지 1차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였으며, 6unit 8명은 9월 7일(화)-9월 10일(금)까지 진행된 2차 파송훈련을 마치고 PGM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친 PGM 선교사집중훈련을 통해 91명의 PGM 선교사를 파송하고 4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사집중훈련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호성기 목사 (국제대표)는 '선교사이기에 선교합니다' (벧전 2:9)라는 제목으로 개회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고 구원받아 존재론적으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선교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훈련이 실시되면서 26명의 PGM 전문강사진들의 이론과 선교사례를 생동감있게 훈련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차 훈련에서는 선교의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중심, 디아스포라중심, Here & Now중심, 전문인중심,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중심, 땅끝중심선교), 8개의 선교사례 (난민선교, 다민족교회, 전문인선교, 지역교회 선교실제, City Church, 웨일즈선교 1-2, 지역교회 차세대선교, 스패니시사역), 선교사의 경건훈련, 타문화권전도, 팬데믹 시대 온라인 선교가 진행되었고, 2차 훈련에는 선교사의 정체성, 인도네시아선교, 선교지 전도전략, 도심선교, 영적전쟁, 내적치유, 선교사 행정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개교회 수요예배가 있는 수요일을 영상자료로 대체한 것 외에는 3주간 오후 7시-10시까지 (미동부시간 기준) Zoom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생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밤 늦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쉽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생 96%가 매강의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도전을 받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100%가 추후 실시되는 PGM 선교훈련에 지인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나눔의 시간에는 모든 훈련생들이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결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충만해야된다는 것, 선교라는 것이 뭔가 큰 결단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 전문인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삶의 현장인 Here & Now에서 유학생, 다민족, 자녀, 이웃, 직장, 교회내에서 복음의 전문인으로 살아 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앞으로 PGM 선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뜻을 쫓아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로의 회복을 돕고, 교회내 평신도들을 깨워 훈련함으로 마지막때에 선교의 동력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PGM 사역에 함께 동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집중훈련 훈련생 간증

선교에 관심이 없지만 남편이 코이카를 통해 의료분야로 중동에 가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나는 중동선교에 막연히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힘들어졌고 나이도 있고 굳이 해외에 나갈 것까지 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GM 선교훈련을 통해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창원에 사는데, 근처에 창원대가 있습니다. 사실 동네에 동남아 유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PGM 선교훈련을 받고 이곳이 내 선교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의와 모든 것을 준비해주신 PGM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숙희 훈련생 (한국)**

지난 3주 동안 저녁시간은, 너무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하나 하나가 모두 재미있고, 많은 것들을 새로이 배우며,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시간이었습니다. 각 주제마다, 말씀을 근거로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선교이론과 현지 선교활동을 생생하게 전해 주셔서,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강사님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서있는 이곳 캠퍼스 타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어떤 모양으로 저를 쓰시려는지,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유동완 훈련생 (미국 일리노이)**

코로나 이전에는 센터를 찾아오는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찾아가 전도를 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하는 가운데, PGM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훈련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팬데믹'이라고 손 놓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방법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866년 9월,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 묻은 성경책 한 권이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된 것처럼, 팬데믹 시대에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 나라 확장에 조그마한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행자 훈련생 (과테말라)**

여성선교사 큐티나눔방 간증

정미향 선교사 (PGM 우간다 선교사)

이 글을 쓰기 위해 기도하니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이라는 찬양이 기억됩니다. 저희 큐티나눔방 5명의 멤버들은 영광의 부름을 받은 가운데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5명의 여성 선교사들은 미동부시간으로 격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이지만 그 시간은 제가 있는 우간다에서는 새벽 3시입니다. 지난 5월 하순에 시작할때는 각자 이런저런 약간의 두려움(이전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예비모임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만으로 Zoom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크게 기대했다기 보다는 그저 PGM 소속 선교사로 동참한다는 동지애였다고 할까요? 꼭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사정상 모이지 못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줍잖은 표현력으로 그간의 감사와 기쁨을 제대로,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할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멤버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모임 후에 우간다는 Covid-19의 가장 나쁜 상황하에 작년에 이어 두번째 락다운이 시작되어서 아직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역지는 언제 정상을 되찾을지 가늠할수 없게 되고 모든 교회도 9월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꼬박 두달 동안은 골목에도 나가지 못했고, 나쁘게 말하면 자유가 있는 감옥이고, 좋게 말하면 수도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만 여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나라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모이지만 동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오래전부터 알아오던 사이처럼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눌때면 뜨거운 사막에서 맑고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여러번 읽었던 말씀의 또다른 울림과 선교사님들의 나눔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셔서 특히나 저에게는 큐티나눔방이 없는 오랜 혼자만의 시간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예상 못한 큰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지에서의 삶이 되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한 자매요, 가족이 되어서 솔직한 나눔을 갖게 하시는 주님과 PGM 본부의 사려깊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웨일즈 온라인 VBS 선교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선교지에서는 지속된 고립과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웨일즈 현지교회도 예외는 아니였지만, 한명의 어린 영혼에게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7월 27일부터 30일 총 4일간 온라인으로 Summer Bible Club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담임: 김기석 목사), 뉴욕 하은교회 (담임: 고훈 목사), 랄리한인장로교회 (담임: 이상현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담임: 양춘길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 미국에 있는 5개의 PGM 회원교회와 Bethany Baptist church of Six bells, Bethesda Baptist church, Castleton Baptist, Tabernacle Baptist church, Westgate Evangelical Chapel 5개의 웨일즈 현지교회가 매칭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전달된 250개 이상의 SBC 패키지가 웨일즈 현지교회를 통해서 250명의 웨일즈 아이들에게 전달 되었고,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영상과 SBC 패키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Westgate Evangelical Chapel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황 가운데 랄리한인장로교회에서 사랑을 담아 준비한 SBC 패키지를 보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2년차에 접어들어서 웨일즈 현지교회마다 아이들의 소리는 멈췄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찬양과 복음의 소리가 전파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해주신 모든 선교의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GM 서아프리카선교훈련원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전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계획하였던 모든 단기선교는 취소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선교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라이베리아는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기 2년전 PGM 단기선교팀을 통해 22명의 현지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이 라이베리아 선교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PGM 서아프리카선교훈련원이 런칭되었고, 이 사역을 위해 4명의 현지 PGM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후 7월에는 PGM 서아프리카선교훈련원을 통해 PGM 비전스쿨이 실시되어 70명의 현지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8월에는 Grand Bassa라는 지역으로 그 지경을 넓혀 PGM 비전스쿨과 VBS를 함께 진행하여 현지인 95명이 선교훈련을 받았고, 161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전도를 통해 지역주민 10명이 세례를 받고 지역교회에 등록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PGM 비전스쿨을 진행할 계획이며, 9월말에 Margibi라는 지역에서 훈련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세계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동이 라이베리아 지역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지역교회에서 무슬림들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Here and Now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베리아 Brian J. Knightley 35명의 아동들이30명의 후원자와 매칭되어 기도와 사랑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Grand Bassa County Mission

비록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Beyond Korean Diaspora의 비전이 지금 아프리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각지에 선교의 부흥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PGM 선교회가 선교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GM 선교시리즈 2

PGM 전문인 선교의 실제

- YouTube 오픈강의 -

호성기 목사

박사무엘 목사

현엽 선교사

김현영 선교사

- 9월: 모든 성도가 전문인선교사로 깨어 일어나십시오! (호성기 목사)
- 10월: 은사론적 전문인의 삶 (박사무엘 목사)
- 11월: 직업적 전문인의 삶 (현엽 선교사)
- 12월: 전문인 선교사례 (김현영 선교사)

GPGM (Graduate-PGM Training)

GPGM 파송식

PGM 선교회는 2011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GPGM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캠퍼스의 현황을 알려주고 캠퍼스가 선교지임과 본인이 캠퍼스 선교사임을 깨닫게 하여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올해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주일마다 GPGM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8월 한달간 YouTube를 통해서 미주지역과 회원교회에 GPGM 훈련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PGM 7대 핵심가치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일반강의도 포함하여 더욱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주신 Dr. Paul Ro (Baylor University Chair and Professor), Grace Choi (Curriculum Engineer at 2U), Dan Park (Manager at Microsoft), Chris Kim (Barun Corp.)에게 감사드립니다. PGM 선교회는 1세대를 넘어 차세대와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GM 정기정책이사회

지난 9월 13일(월) 오후 6시 PGM 정기정책이사회가 Zoom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기정책이사회를 통해서 김기석 목사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담임, PGM 부이사장)가 제5대 PGM 정책이사로 추대되었으며, 2022년 진행될 제5차 세계전문인선교대회 및 PGM 선교사대회에 대해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SPECIAL THANKS
(2021년 6 - 8월 후원현황)

Check, Venmo, tithe.ly, Credit Card를 통해 후원가능 (문의: admin@pgmusa.org)
** 6-8월 입금분 기준이며, 월말 입금분은 6월 입금으로 처리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후원 권명희, 권위자, 김관승, 김광진, 김문자, 김민수, 김순철, 김옥숙, 김이향, 김종오, 김천태, 김현주, 김호식, 남선균, 박인선, 박재기, 박찬근, 방영숙, 방영신, 서형주, 설신건, 성옥자, 손혜나, 오여란, 우철준, 유송철, 유철호, 이범숙, 이상원, 이은송, 이정희, 이종창, 이지혜, 임병욱, 임종희, 임효순, 장신애, 장혁준, 정우연, 정현신, 최경희, 최석원, 최영자, 한유섭, 한주현, 한준희, 황순석, 황진영, 무명, Frank Cho

재정이사 김상진, 김원석, 김종상, 김효람, 박정아, 박태동, 박현주, 서장혁, 신재열, 오은혜, 윤혜찬, 임재영, 최명진, 최수만, 하경호, 한중희, 홍정표, 황재찬, 황태관, 이문희, 조재호, John Park

특별후원 박성석, 이영애, Christina Kim

아동결연 곽철민, 김경하, 김옥숙, 김태교, 남선균, 박정아, 배숙희, 서형주, 성태일, 신혜원, 오여란, 오지연, 우철준, 유해숙, 윤혜찬, 이은영, 임종희, 최성호, 최수만, 한송희 (한다솜), 한유정, 한형규, 홍성희, 홍유빈 (김보미), Chloe Kang (Elliott Kang), Ethan Kim, Kaden Kwon (Ethan Kwon)

회원/후원교회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메릴랜드 예수사랑교회 (조병래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Grace Church (Rev. Gus Kim)

정책이사 고훈 목사 (뉴욕 하은교회), 김기석 목사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박윤선 목사 (뉴욕 어린양교회),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